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나다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0월 13 일(수요일) / 장소 : 이디야 한림대점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임**> 어쩌다 의사, 김지용</p> <p>1.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p> <p>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아픈 곳을 고쳐주는 의사보다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옳은 생활 습관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천'하게 도와주는 의사가 될 것이다.</p> <p>2. 책의 저자/주인공과 나의 공통점은? 차이점은?</p> <p>- 공통점</p> <p>1)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나의 경험을 녹인 책을 쓰고 싶다는 점.</p> <p>2) 어쩌다 의대에 오게 된 점. 저자 또한 수능을 잘 봐서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사의 꿈이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 성찰과 여러 경험을 통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나와 비슷하게 여겨졌다.</p> <p>3)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아빠가 되는 데 있어서, 뇌부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자는 완벽주의가 있다. 나 또한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습을 돌면서 교수님들을 보고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p> <p>(책 인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대상'이다. '충분히 좋은'이란 말을 내 방식대로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군데군데 불만족스럽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이다.</p>							

3.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잘못된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삶을 살고 싶다. 나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도전을 하는 삶,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 것이다.

<박**>

간호사는 고마워요, 잭켄필드, 마크빅터한센

1.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 주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
- 환자가 병원에서 보내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간호사

2.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한 이유

-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 그때 읽었던 도서들과 간호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간호사의 긍정적인 면을 찾게 됨
-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옴
- 간호사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경험과 감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추억이 되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짐

3. 책의 저자/주인공과 나의 공통점은? 차이점은?

- 공통점(한 환자의 이야기)

> 늙은 여자 환자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딸 셋을 키우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임종시설로 들어왔다. 그분은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러느라 당신의 삶의 기쁨을 계속 뒤로 미루고 지냈다. 이분에게 있어 행복은 어릴 적 먹던 라즈베리 크림이었는데 열심히 사느라 그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늙을 때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음.

> 먼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사느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일들을 놓칠 때가 많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 주는 현재의 기쁨을 나중에 미루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면

- 차이점 (한 간호사의 이야기)

> 병원의 규정상 병실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됨. 하지만 한 환자가 장기입원 후 자신의 강아지를 보지 못해 삶의 의지를 잃어 가자 담당 간호사는 몰래 환자의 강아지를 데려와 잠깐이나마 환자와 만날 수 있게 해줌. 그 시간을 계기로 환자는 앞날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회복되어 머지않아 퇴원하게 됨.

> 위의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결단력 있게 선택을 하지만 나에게 아직 그러한 용기가 없음. 나는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일들을 원리원칙대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있는데, 때론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환자에게 더 필요한 간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3.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 20대: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음

- 30대: 가정을 꾸려 아이를 양육하며 국제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짐

- 40: 해외로 나가 일을 해보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짐

- 그 이후: 여러 곳을 다니며 내가 배운 간호학으로 의료봉사를 하려 다님

내가 배우고 경험한 호학을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경험하고 활용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고 싶음

<김**>

노터리어스 RGB, 아이린 카먼,셔나 크니즈닉

1. 책 소개와 책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

이 책은 루스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을 그려낸 위인전이다. 미국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많은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은 긴즈버그가 어떻게 여성 차별적인 법을 바꾸기 위한 판례를 만든 것이다. 긴즈버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스티븐 비젠펠트의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을 성차별 주의가 모두에게 해로움을 입증할 기회로 삼았다. 나는 긴즈버그의 선구안에 정말 놀랐다. 차별은 약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서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듣고서 생각의 틀이 깨졌다. 좋은 방향으로 말이다. 나에게 가치관과 사고의 틀을 이렇게 넓혀준 사람은 긴즈버그가 처음이었다. 심지어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고3 시절에 읽었기 때문에 더욱 감명 깊었다. 이 책은 그 후에 내가 하기로 한 것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다.

2.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의 신념을 만들어가고 발전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것, 자신이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기 위한 경험은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맞지만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 중 하나이다.

3.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계속 배우는 것이다. 단순히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나 자신을 더 다듬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김**>

애들아, 너희가 나쁜게 아니야, 미즈타니 오사무

1)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차적인 WANT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봉사.. 헌신.. 모두 걸맞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남을 돕지만, 최근에 저에게 새로 생긴 가치관은 부와 돈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은 꾸지도 않고 있죠. 단순 행정, 사무직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길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신념이거든요.

앞서 말했듯, 저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부와 돈은 봉사와 헌신과 상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을 모두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사회복지사의 대우와 인식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사회복지학을 왜 전공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좋아서 전공한 것인데, 제 신념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생긴 새로운 가치관이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억누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돈도 챙기며 남을 돕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 하면 조금 고민은 하더라도 나오는 대답은 항상 같을 것 같습니다.

> 남을 돕는 것, 이게 저의 굵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2) 책의 저자/주인공과 나의 공통점은? 차이점은?

→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야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비행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자신의 희생까지 겸해서 말이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지지해줍니다.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책에서 나오는 비행 청소년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약물 남용에 조직폭력배 일원, 가출 청소년, 절도 및 기타 범죄 등 그 사례가 다양하죠. 주인공은 이 청소년들을 마치 보호자의 태도로 돌봐줍니다. 여기서 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자체가 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봐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이점은 저는 주인공만큼의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청소년의 사례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비행 청소년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고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퇴 조건으로 폭력배 대장은 다시는 이 조직에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비행 청소년은 또다시 그 조직폭력배에 발을 담그게 됐고 약속을 어겼으니 대장은 주인공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합니다. 대가는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비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를 자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용기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만큼 헌신적이지 못한 것인지, 저는 저렇게까지 저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비행 청소년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내 신체 일부를 포기하는 주인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경지를 넘어섰을지도 몰라요. 말하기 어려운 오묘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죠.

3)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제 인생 목표는 아직까지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무원을 꿈꿨었어요. 근데 공무원은 솔직히 돈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노후보장이 되니까 그 메리트에 시험을 보는 것이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말했듯이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을 아예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1순위가 공기업, 2순위가 공무원입니다. 공기업도 그냥 공기업이 아니고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그런 것들이요. 저의 전공을 살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어요. 자격증 준비에 대외활동도 알아보고 있고 학점도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죠. 요새는 학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예요. 저는 그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2학년 때쯤 가서야 생기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또 지금이 시험 기간이지 않습니까? 전공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 공부는 끝이 아닙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취득을 위해 또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과장하자면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제가 또 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쉽게 감정에 치우치거든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는 것이 저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인생 목표는 이러합니다.

> 공기업에 취업하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기관으로.



노션을 활용하여 각자의 내용 정리함.

2021년 10월 16일

참가자대표 : 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나다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0월 27 일(수요일) / 장소 : 이디야 한림대점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아비투스-도리스 메르틴</p> <p>I. 책 요약</p> <p>아비투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 2의 본성 -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 <p>1장-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를 많이 혹은 적게 몸에 익힌다. 행동 방식과 생활방식, 지위와 언어, 자원, 성공 기회, 삶에 대한 기대에서 추진력을 얻느냐 제동이 걸리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렸다. - 하지만 우리는 아비투스를 바꿀 수 있다. - 출신 아비투스는 비록 우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 돈으로만 아비투스가 결정되지 않는다. 자본에는 돈과 능력 이외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 인상 깊은 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 있다. 태어나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태도를 빚어낸다. - 이 모든 경험이 합쳐져 나중에 무엇을 평범한 일, 추구할 만한 가 							

치가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느낄지 결정한다.

2장-심리 자본

- 요약

1. 늘 같은 곳에 머물지 마라
 - 한계를 긋는 태도 '고정 마인드셋'-"나는 원래~"
 - 위로 올라가야 한다면 상승기류를 형성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 학습, 자기 최적화, 한계 극복
 2.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 인생의 힘겨운 구간에서는 신랄한 비판 견디기, 실수 허용하기, 허황된 소망 버리기, 좌절하지 않기
 - 실패 후 행동력이 중요하다
 3.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 목표지향적
 - 트렌드를 만들어라.
 - 기업가 정신
 - 계속 자신을 계발하라.
 4. 야심이 가능성을 만든다.
 - 어느정도 성공 확신 필요하다.
 - 자신감
 5.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긴다.
 - 좁은 마음을 넓은 몸짓으로 바꾸는 매일의 연습이 관대한 습관을 만든다.
 6. 높은 목표는 안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7. 올바른 품성이 성공을 유지시킨다.
 - 인류애와 보살핌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윤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하고, 감정을 제어하고, 열정을 억제해야 한다.
 8. 죽은 후에도 성공은 남아야 한다.
 -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 생산성은 소규모로도 진행된다.
 - 누구든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음.
- 인상 깊은 구절
-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퍼센트이다.
 -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3장. 문화자본-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 요약

- 문화와 교양의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 but 트렌드 계속 변화 > 돈으로 해결할 수 x, 현재 어떤 취향 선망 받는지 보는 통찰력o

- 한 번의 도약으로 뛰어넘을 수 x.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는 될 수 있어도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취향을 이끄는 사람 될 순 x.

- 지위가 취향을 결정. 상,하류층의 취향이 모두 같을 수 x. > 가진 것을 좋아하는 태도도 삶의 기술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상류층의 취향을 추구해야 함)

- 상류층의 취향을 추구하기 위해 꼭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x. (소유 능력 < 안목) > 사치를 부정적으로나 치부하지 x, 작은 사치가 생활을 풍성, 여론 형성 o

1. 문화 자본은 거저 생기지 x, 구체적 실현이 중요
2. 문화 형식과 공연 종류 사이에 명확한 계급 구조가 존재. 이를 인정하고 문화적 흐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월함의 증거
3. 책, 미술관, 공연에서도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지만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
4. 적은 돈으로 취향 드러낼 수 있다. 나쁜 것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취향을 높일 수 있음
5. 문화적 뿌리를 인정하고 가능한 자신의 출신을 장점으로 바꿔라. 만약 상류층이 아니라면 두 가지 이상의 환경을 잘 알고 표적 집단 이해 가능, 현실적이고 친근한 사람으로 통할 수 o
6. 올바른 파트너 선택으로 문화자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o
7. 교육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가져라. 문화와 시대에 편견 없이 따르고, 관찰한 것을 교차할 수 있는 사람일 디라.

- 인상깊은 구절

> 시대정신에 맞는 취향을 알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이스크림으로도 시대정신에 맞는 취향을 끄집어낼 수 있다.

> 교양 있는 사람은 취향을 드러내되 절대 거기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4. 지식자본-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요약

- 졸업장과 학위는 명패만 장식하는 것x, 빨리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실제 대학졸업장의 유무로 사람 소득 비교해보면 차이 존재)

-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는지 알아야 함 / 아비투스과 분야가 일치

> 자신의 본질에 맞는 삶 누림

- 관심사를 폭넓게 o. 때론 대학 전공의 세분화가 개인적인 가능성과 시야를 좁힐 수 o, 상류층은 모든 강연에 관심을 보이지x, but 모든 강연을 들음. > 다양한 지식자본 갖춘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 독창적 해결책 고안

1. 최고의 교육환경을 겨냥하라 > 자신의 전문성 마련, 위기 시대에도 살아남음, 특권층과 비슷한 지평 제공
2.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말고, 정해진 교육과정 너머의 지식까지 쌓아라
3. 자신의 지식 자본이 어디에서 최고의 이윤을 내는지 생각해라,
4. 자신의 능력에 오만하여 오는 실수에 조심
5. 지식을 습득하지만 말고 내면화하라
6. 지식을 다방면으로 확장하여 좌절,질병,돌봄 같은 삶의 과제로 연결하라
7. 겸손해라
8. 상사를 존중하고, 비판을 할 때는 제안으로 해라

- 인상깊은 구절

>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아비투스(習性)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에 맞게 전문화할 준비성도 갖추기 어렵다

5장-경제자본

- 요약

돈, 관계, 의미.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만 우리는 살 가치를 느낀다. 그러므로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단, 자본 유형을 정확히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인격 발달을 위해 재정적 가능성을 이용하라.

돈, 관계, 의미.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만 우리는 살 가치를 느낀다. 그러므로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단, 자본 유형을 정확히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인격 발달을 위해 재정적 가능성을 이용하라.

- 인상 깊은 구절

****그러나 아비투스(아비투스)는 새로운 상황보다 느리게 절뚝거리며 따라온다.****

6장-신체자본

- 요약

신체와 정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다. 우리 대부분은 신체자본이 클수록 더 쉽게 최고 실력을 발휘한다.

자신감. 옷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입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를 대하는 태도는 체중(gewicht), 흡연(rauchen), 술(alcohol), 운동(bewegung), 섭식(ernahrung) 다섯 요소의 첫 글자를 딴, 이른바 'GRAVE(무덤) 지수'에서 나타난다. 저마다 다섯 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요소만큼은 모든 계층이 똑같다. 모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7장 언어자본

- 요약

작가는 말하는 방법, 말하기 방식, 단어 선택, 말하기 태도 등과 관련하여 언어자본을 소개하고 있다. 사람이 쓰는 언어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이 되고 말하는 방식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한다. 작가가 강조하는 말하는 방식은 '명료하고 정중하게'이다. 내 의견을 전달할 때, 확실성 있게 전달하면서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갖추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하다면서 강조한다. 외에도 욕설이나 줄임말과 같은 단어 사용은 지양할 것을 언급하고 언어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인상 깊은 구절

> 영국 상류층은 사용하는 어휘에서 벌써 사회적 지위가 드러난다.

>

옛날부터 항상 신념처럼 여겨오던 것이 있다. 토론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게 될 때, 단어 선택을 항상 신중히 하자는 것이다. 말하는 데 있어서

문장 구사력이라든지, 문맥에 신경을 쓴다든지 등을 신경 쓸 필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어 선택 능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이 어떠한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화법 가치가 훨씬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말을 할 상황이 오면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이 때문에 저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 내 생각

살면서 한 번쯤은 말을 가려서 해라, 대화가 저급하다 등의 소리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품격있는 방식과 단어를 채택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때에 맞지 못한 화법을 사용하면 주변에서 퍽박받기도 쉬우며 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 의견을 낼 때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당한 화법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8장 사회자본

- 요약

작가는 사회자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출신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환경과 주어진 것들을 수긍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이다. 다만,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 내 품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출신 아비투스(아비투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또래와 같은 사회자본을 가질 수는 없다. 사회자본에서는 특히나 '환경'을 집중적으로 본다. 주변 사람에 의해 내가 완성될 수 있고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멘토를 두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인생에 도움이 될만한 멘토를 한 명 정도 두는 것이 내 아비투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단순한 '아는 사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회자본의 일부이다.

- 인상 깊은 구절

> 사회관계는 회전교차로와 같다. 먼저 진입해서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다.

>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인 것 같아 와닿았던 것 같다.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우리는 고위 계층의 사람들과 동등해지기는 매우 어렵다. 다 순서가 있으며 섭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들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발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그들과 비교되는 것이 불만이라면 내가

노력을 해서 그들과 이전과 달리 더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은 사회현상이지만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내 생각

최근 사회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원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친목활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서 나 자신이 바뀌게 되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려고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기도 한다. 인맥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결국에는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미있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에 던져진 이상 사회자본은 꼭 필요한 자본이고 이를 가꾸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자본은 환경을 많이 언급하다보니 전공에서 배웠던 '환경 속의 인간'이 생각나였다.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위에서 말했던 아비투스 사회자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와닿았다.

책에 대한 평가-예지

현재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중에 발판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장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고 피하려고 한다. 책에서 아비투스는 새로운 상황보다 느리게 절뚝거리며 따라온다고 한 것을 읽고 현재에 충실함이 나중의 재산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을 막연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봐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바꾸고 싶어졌다.

여담이지만 번역이 너무 깔끔해서 읽기 편했다. 옮긴이 작가분의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어졌다.

II.

아비투스에서 말하는 7가지 자본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중

1)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2) 보완해야 할 자본에 대해 생각해보자.→부족한 자본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규*>

	자본	가지고 있는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1	심리자본	희망-나의 가능성, 회복 탄력성	가끔 찾아오는 불안감 명상과 작은 성취의 반복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느끼기
2	문화 자본	여행 취향, 음악 취향 취향이 확고하다. 조금 더 나의 색을 확실히 찾을 것	예술(전시회, 클래식) 단순히 안 맞는다고 지부하지 말고 더 경험해보면서 그중 나의 취향을 찾기
3	지식 자본	의대 졸업장 전문성-의학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린 마음	정말 전문성이 있을까? 1.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 필요 2. 지식의 내면화 부족 -실행, 모방, 실험, 토론, 질문, 변형
4	경제 자본	경제 자본에 관한 관심 공모주-추가수익 낭비하지 않음-옷, 화장품 등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기	노동소득의 부재 내년에는 직접 소득을 얻을 것 파트타임요즘...규성함으로서, 경제자본 증진을 위한연구
5	신체 자본	야식 먹지 않음, 배달 음식 자제 주 4회 필라테스 좋은 피부	악한 체력, 적은 근육->꾸준한 운동이 필요, 유산소 운동 추가로 진행 걸음걸이, 앉아있는자세더바르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기-명소에도
6	언어 자본	욕을 사용하지 않음	당당한 말투, 분명하게 말하기 스몰토크능력 상급자 대하기
7	사회자본	친구들 블로그 이웃 관계 발전시키기	멘토, 돈독한 교수님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 참석하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되 과도하게 애쓰지 않기

<예>*

	자본	가지고 있는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1	심리자본	심리 변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야심, 야망, 내 분야에 대한 열정	불안한 마음, 강박증, 스트레스 관리법
2	문화 자본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특히 전시회,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 코스로 전시회를 찾아보고는 한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것, 문화인이 되고자 더 노력할 것
3	지식 자본	자격증, 나의 전공 지식, 성취하였을 때 더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	상식을 많이 쌓을 것, 취업 진출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4	경제 자본	가계부 - 수기 작성이 아닌 스마트폰 어플 이용 주식하기, 저금하기, 적금&주택청약 들기	경제에 매우 취약하므로 기본 지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을 배우려고 노력하기, 주식에 대해 공부하기, 돈 관리하는 법을 더 탐구하기
5	신체 자본	자주 걸어다니는 것	옷이나 패션에 대해 관심 가지고 공부하기, 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탐구하기, 나를 가꾸고 꾸밀 줄 아는 습관 들이기 체력 기르거나 운동하기, 체력 너무 쏠지 말고 나를 위해 휴식 시간도 가지기
6	언어 자본	남을 생각해서 배려있게 말하기, 예의 있게 말하기,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 사용하기	욕 사용 자제(또는 풀이기),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 말로 표현 많이 하기(할..하기)
7	사회자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노력	아직까지 사람 만나는 것이 조금 두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들일 것, 인맥 넓히기,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다양한 친목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예*>

	자본	가지고 있는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1	심리자본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본 경험.	종종 찾아오는 불안감 잘 해소하기.
2	문화 자본	어렸을 때부터 들은 클래식 음악. 관심 있는 장르의 여러 지식.	흥미가 없는 분야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 특히 고전.
3	지식 자본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것.	전공 이외의 지식을 쌓기.
4	경제 자본	학비와 생활비. 주식을 해보면서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배워 보는 중.	가지고 있는 부분 외 모든 것.
5	신체 자본	기초 체력.	끼니 거르지 않고 체력 기르기. 기초 체력이 더 발전하도록 꾸준한 운동.
6	언어 자본		원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말 흐리지 않기.
7	사회자본	새로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본 경험.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

가지고 있는 자본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근접한 자원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고, 전공이 아닌 교양을 다방면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학교에 낸 등록금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하고 있는 북클럽도 있고 신청한 골든벨도 내일 예선이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상담 프로그램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알아보고 있다. 이처럼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

보완해야 할 자본

가장 시급하고 노력이 필요한 자본은 신체이다. 일상이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다 말다 하고 있다. 심지어 끼니를 종종 거른다. 건강에 정말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완하기 위한 노력

잠시 쉬었던 운동을 다시 할 것이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기르고 싶다.

<제* >

	자본	가지고 있는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1	심리자본	감정적 평온(인간관계에 대한 안정감)	회복 탄력성과 불안/긴장 ▶ 어려운 상황에 끊임없이 도전. 그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기/ 긴장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격식을 지키는 태도 훈련
2	문화 자본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는 태도 but 지나친 만주는 금물	사치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적당수준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시각을 넓혀 안목을 기르게 해줄을 인지
3	지식 자본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	다양한 지식 습득의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넓은 지식과 소양 쌓기
4	경제 자본	...	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 ▶ 경제 분야의 정보를 찾아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아보기 지나친 소비 ▶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하기, 가계부 작성해보기
5	신체 자본	건강한 식단을 해먹으려고 노력 패션, 센스 주 3회 홈트나 러닝으로 체중관리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활패턴 망침 ▶ 적당한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 노력 부족한 체력 ▶ 주1회 등산, 주말 운동 실천
6	언어 자본	욕을 사용하지 않음 공감능력 > 따뜻한 위로의 말	대립상황을 싫어하여 회피하려는 성향 ▶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의 주장을 내는 연습
7	사회자본	안정감 있는 가족, 같은 전공의 동아리 사람들	더 넓고 다양한 사람 만나기 나의 멘토 찾아보기

2021년 10월 30일

참가자대표 : 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나다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0 일(수요일) / 장소 : 이디야 한림대점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내가 요즘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 <개별 책 선정-내가 관심 있는 분야></p> <p>1) 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보자.</p> <p>2)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얘기해보자.</p> <p>3) 이 책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은?</p> <p>그냥 하지 말라, 송길영</p> <p><임**></p> <p>1) 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보자. 트렌드가 트렌드인 시대이다. 실제로 2022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 10권 이상 출판되었다. 트렌드가 트렌드인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되지 않으려면"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의대생인 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이 의료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예측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내가 AI보다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AI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경제적, 감정적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것, 알고리즘 밖의 경험에서 비롯한 환자 맞춤 진료를 하는 것, 정형화된 의료 밖의 의학을 연구하는 것은 AI의 영역 밖이라 생각한다. AI가 어느 정도 발전할지 계속 공부하고 나만의 차별성을 길러야 한다. 전문성과 차별성 없이는 대체되기 딱 좋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p> <p>또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렌드는 돈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읽는 자가 부와 명예를 얻는다. 직접 선두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예측하는 능력은 부를 가져다준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는 1년 사이에 주식이 3배 가까이 올랐고 한국 메타버스</p>							

기업도 저점에 비해 3배 정도 올랐다. 트렌드가 트렌드라는 것을 읽은 출판사들은 "트렌드 책"을 출판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2)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트렌드 관련 책 읽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 생각해보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3) 이 책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냥 하지 말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1. 편안한 문체로 쓰여있어 강연을 보듯이 쉽게 읽을 수 있다.
2.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책을 풀어내고 있다.
3. 미래를 보는 시야를 넓힌다.

이 3가지 면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은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고민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변화의 상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바뀐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저자는 다음 3가지를 코로나로 속도가 더 빨라졌고, 앞으로 더 강화될 변화라 말한다.

1. 분화하는 사회
2. 장수하는 인간
3. 비대면의 확산

'당신은 혼자 살고, 당신은 오래 살고, 당신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계획을 한다면, 그 변화가 미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 앱의 활성화부터 '재택근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통념들이 깨지기 시작했다. 회사로 출근을 하고, 학교에 직접 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업무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알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저자는 '가치관의 액상화'라 표현한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각자의 능력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

었다. 직접 파일들을 바로바로 올리면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누가 '무임승차'하는지 드러나게 되었다.

"선배님 이름은 뺄게요." 라는 사이다 카피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별 증거가 남기 시작하고 과정의 충실함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속이기 어려운 시대이다. 나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글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으로 남겨져 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검색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집단의 '성장'보다 개인의 '자람'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었느냐보다,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실적을 냈는 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퍼스널 브랜딩'이 인기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일 테다. 회사를 벗어나서도 내가 어떤 능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타인으로부터 내 평판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어 중간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중간을 학습하고 있다. 중간에 있는 인간은 대체되기 십상이다.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하되, 장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진짜를 찾으려 한다. 오랫동안 해와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진정성 있게 꾸준히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검색한 번에 드러난다. 속일 수 없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서는 안된다. 먼저 시작하고, 오래 해야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나만의 것을 얻으려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도 계속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왜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했는지, 왜 이 물건을 구매했는지부터 내가 "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유행을 볼 때도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오징어 게임이 왜 유행인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왜 유행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행동에,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Why"를 생각하고 "How"를 생각해야 한다. "그냥"이란 없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나"를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진짜"를 알아보고 "나" 그 자체로 인정받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간호사, 윤혜진

박**

1.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보자.

평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음

간호학과 전공 시 간호사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함

- 나는 간호학과를 전공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분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 나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짐
- 우연히 유튜브에서 '간호사 공부방' 채널을 운영 중인 국제 간호사 윤혜진님을 보게 됨,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라 이분이 집필하신 국제 간호사 관련 도서를 선택.

2)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음.

- 언젠가 한번 짬은 외국으로 나가 선진화된 간호 환경에서 일해 보고 싶음
-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행복한 간호사가 되고 싶음
- 이미 내가 꿈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접해보기 위해 여러 도서와 유튜브, 블로그를 관심있게 봄
 - '간호사 공부방' 의 윤혜진 간호사(두바이),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의 김리연 간호사(미국) 등
- 나의 꿈의 기초가 되는 영어공부 (실전, 회화 위주)를 즐겁게 공부하고자 노력 중
 - 미드 시청, 영어책 오디오북 > listening
 - grammar in use 인강 > grammar
 - 리얼 클래스, 튜터링 > speaking
 - Discord 스터디, 학교 영어수업 > 스터디 참여

3) 이 책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은?

> “무스펙, 전문대 졸업, 2차 병원에서 꿈의 병원에 가기까지”

>

→ 저자를 한 줄로 소개한 문장

이러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를 '일단' 시작했기 때문이라 강조

- 저자인생의 5번의 일단

1. 영어공부 (반복과 의지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공부, 외국인과 과외)
2. 일하고 싶은 나라 선정 (번역기를 사용해 방대한 자료 수집, 종일 서칭 할 정도의 노력)
3. 학사 학위 취득 (업무와 학업 병행)
4. 두바이 간호사 면허 시험 (정보 없는 시험이었지만, 구글로 예상 질문 뽑아가며 공부)
5. 이력서 돌림 (무작정 이력서 관련 서적 4권과 번역기를 참고하여 해외 병원 사이트의 이메일로 이력서 제출)

저자가 한 '일단'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한번 느낀 것

> 아무리 무모하고 위험부담이 큰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일단 시도해보는 것,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넓은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 중요.

> '시도하려는 마음'과 '실행력'이 중요

> "우선 '이직'을 바라보는 생각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

- 저자는 2번의 이직을 함

1st. 태움이 심한 병원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생활을 함

2nd. 꿈에 그리던 두바이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에 좌절함

→ 그러나 때마다 자신의 환경에 안주x,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실력을 높임.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무작정 버티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누군가의 사직을 안쓰러운 시선이 아닌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함

>지금의 환경에 불평만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 보일만큼 노력해서 몸값을 높여야 함

>내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나오는 용기도 필요

> "이미 일어난 상황을 탓하기보다 해결을 하는 사람이 되자.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자."

>

> "We don't make mistake, we just have happy accident."

>

- 저자가 두바이 간호사로 일하는 도중 작은 실수를 범함. 한국 간호조직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에 저자는 매우 불안했고 자신의 동료에게 털어놓음. 외국인 동료는 누구도 타인의 실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조언해줌.

→ 나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저자의 동료들의 조언대로 내 실수는 나의 것.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지 말고

실수를 성장의 도구로 삼으면 됨.

> "좋아하는 것 하나를 얻으려면 싫어하는 것 하나를 해야 한다."

>

- 저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너무 하고 싶지 않아 미루고 싶을 때 속으로 되새기는 말

- 해외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에서의 노력의 몇배가 요구됨. 즉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함

- 미래의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구체화해야 함

- 하기 싫은 일의 실행은 당장의 행복감보다 그 너머의 성취감을 맛보게 함

→ 국제 간호사라는 막연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의 기초가 되는 영어 공부조차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x . 내가 꾸는 꿈이 가져다 줄 성취감을 바라보며 '일단' 영어공부 시작 o . 그리고 막연한 꿈을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Beyond Band of Brothers, Dick Winters

예*

1. 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보자.

관심을 두게 된 분야는 전쟁사이다. 최근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종군기자로서 군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HBO에서 제작한 드라마이다. 이라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미군의 모습을 미화없이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인상깊게 보았다. 세계사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

회에 현대에서 큰 사건 중 하나인 세계대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리고 HBO에서 2차세계대전을 바탕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두 개 더 있다. 각각 유럽전선과 태평양전선을 그려냈다. 이 책은 유럽전선에서 활약한 공수부대의 장교가 쓴 자서전이다. 여러 매체에서 전쟁에 대해 접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좋았다. 깊게 생각 해보게 된 주제에는 '전쟁에서의 도덕적 기준은 어떻게 재정립되는가' '징병제; 여성과 남성' '모병제와 사회 계층' 등이 있다.

2.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역사를 그대로 다룬 책은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이 책처럼 참전용사의 자서전을 찾아 읽고 있다. 아쉽게도 번역본이 많이 없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세계대전'이 전반적으로 설명이 친절하다. 그리고 영상자료도 함께 들어있어 처음 접근하기에 좋았다.

3. 이 책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은?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적은 사라졌지만 군인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독일군의 머리였던 히틀러가 사망했지만 종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투가 없어도 사상자는 끊이지 않았다. 전투 중에 전사한 이들도 안타깝지만 적군도 없는데 전사한 이들은 더욱 안타까웠다. 전쟁 도중의 참혹한 모습보다 평화로운 시기에 허무하게 떠난 이들을 보면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느꼈다.

매일 심리학 공부, 우리창
채*

1)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보자.

최근 인간관계나 인맥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외향적인 애인의 영향을 받아 나도 인맥 관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평소 애인을 이상시 하기도 했기에 더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애인 때문입니다.

2)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여러 개 들면서 시간 여유가 되는 활동들은 모조리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표

현하기 위해 말을 많이 걸어보려고 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외향적인 사람을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모임을 참여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모임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서툴고 사람 다루는 게 어렵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이 책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은?

책의 3장입니다. '1분만 더 시간을 준다면'이라는 제목과 함께 '심리학으로 대인관계의 폭 넓히기'라는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가장 잘 기술해놓은 부분입니다. 처음 만남부터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실어놓기도 하여서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페이지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지만 유독 저는 3장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인만큼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잘 기술해놓아서 이 부분을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 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나다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요일) / 장소 : 이디야 한림대점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당신이 옳다>-정혜신</p> <p><책 내용 요약></p> <p># 3장. 공감_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p> <p>-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은 그저 들어주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감정노동)이 아니라 정확하게 듣는 일 -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 <p>언제나 내가 먼저,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 < 내 상처에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 감정적 반응x <p>존재가 또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갖게 되는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o</p> <p>공감은 타고난 감각, 능력x, 학습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대화의 과녁은 언제나 '존재 자체' <p style="text-align: center;">>>전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따뜻한가 아닌가 x, 그 말이 상대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인지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 =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 x , <p>상처입은 자기 마음결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며 분리해 가는 과정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자 = 묻고 공감하고 또 묻고 다시 공감해 주는 일을 반복(상대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견해를 말하거나 주장하기 < '그'에게 주목, 그의 마음에 대해 묻기

- 상대의 생각과 행동 x , 마음에 공감 ← 공감 과녁은 언제나 상대의 '존재 자체'에 향하도록...

-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 BUT 행동까지 옳은 건 x

- 인상깊은 구절

> 공감적 대화의 과녁은 언제나 '존재 자체'다. 방향과 길을 잃은 상대의 말이 과녁에 분명히 도달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상대의 손목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

>

> 치유란 특정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

4장

1. 우리는 모두 개별적 존재 개별적 존재라는 것은 타인과의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계를 인식해야 공감이 가능하고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2. 자기 보호가 먼저다 상대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결정적인 건 자신의 상처와 연결된 감정이 자극될 때다.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시에 자기도 주목받고 공감받는 행위다. 따라서 공감은 자기 보호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3. 헌신과 기대로 경계를 넘지 마라 경계가 무너지면 희생하고도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나와 '내가 아닌 너'를 구분하고 인식해야 공감이 가능하다.

4. 감을 관계에서도 올인 '나'를 드러낼 수 있나 경계란 개념은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다. 자기 경계를 허물면서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는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관계는 배움과 성숙의 기회를 기반으로 유지해야 한다.

5장

1. '다정한 전사'가 되어 누군가의 공감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공감을 막는 허들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 공감자는 단호하게 허들과 싸워야 한다.

2. 좋은 감정 vs 나쁜 감정 대표적인 허들은 감정에 대한 통념이다.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잘못된

- 고 위험한 통념이다. 감정은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3. 충족되지 않은 사랑에 대한 욕구 나와 또다른 존재 간에 공감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삶의 동력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사랑할수록 받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크기 때문에 서로를 수용하고 공감하는 일은 어렵다.
 4. 내 안에 남아 있는 콤플렉스 자신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로 넘어갈 방법은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성찰로 인한 공감력이 스스로를 구한다.
 5. 개별성을 지우는 집단 사고 집단 사고는 한 존재의 심리적 개별성을 지워버린다. 내 마음, 내 느낌 등 개별적인 존재로서 접근하는 것이 제대로 된 관계의 시작점이고 그게 바로 공감이다.
 6. 유형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 누군가를 이상화하는 건 '자기'를 박탈한다. 외형적 조건은 사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6장

1. 궁금하지 않은 데 질문을 할 수 없다. 물어보아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2. 다르게 느끼더라도 기꺼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3. 자신을 먼저 공감해야한다.
4. 사과를 할 때는 그냥 사과가 아니라 '온 체중을 실어' 사과해야 한다.
5. 사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원래의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받는 2차 트라우마이다.

<토론>

<규리>

1.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 책에서 말하는 공감과 내가 생각하는 공감은 어떻게 달랐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온전히 동감해야 공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책에서 말하는 공감은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2. 진정한 공감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나에게 해주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공감을 받았다.

3. 공감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내 이야기에 부정할 때 힘들었다.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나의
힘들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힘들었던 것 같다.

4. 마음이 어떠신가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함과 그래도 이겨내고 할 수 있겠다는
나에 대한 확신.

<예*>

1.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 책에서 말하는 공감과 내가 생각하는 공
감은 어떻게 달랐다.

내가 생각한 공감이란 이해였다. 하지만 책에서는 타인과의 경계를 정확
히 긋고 그것을 지키면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내
가 생각하는 공감과 달랐다.

2. 진정한 공감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을때, 묵묵히 들어주는
상황에서 공감을 느꼈던 것 같다.

3. 공감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한테 공감받지 못한 것이 제일 힘들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학
업문제로 많이 공감받지 못해서 힘들었다.

4. 마음이 어떠신가요?

입시 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대학오고 나서 여유로워지고 즐겁다. 요
즘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살고 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채*>

1)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 책에서 말하는 공감과 내가 생각하는 공
감은 어떻게 달랐다.

진정한 공감 - 역지사지의 마음, 생각의 기준이 '나'가 아닌 '타인'이
될 것. /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어떤 기분이었을까).

가장 이상적인 공감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감. ⇒ 이해가 되지 않더
라도 해주는 공감이 나쁘다는 소리 X

예시 : MBTI 밈(짤)

F : 그런 거에 공감 하나도 못해줘?

T :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

F : 그럴 수도 있겠다ㅠㅠ

F형 인간이 속상한 상황에서 공감 하나도 못해주냐고 T를 추궁하면 T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나면서 말을 한다. 이에 F는 이마저도 이해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감은 배울 수 있다? ⇒ 받은 인정, 받은 인정X

남자친구를 예시로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극강의 T라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이런 공감 문제로 인해 자주 투닥거린 적이 있어 실제로 공감에 대해서 가르쳐주었는데 로봇같은 공감, 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 말고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2) 진정한 공감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6년지기 친구? 힘들 때 서로 지지해주고 감정을 나눴음.

과잉 공감 → 리액션이 크다?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있음

3) 공감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친구... 이성적이고 감정을 사고의 과정에서 배제함

4) 마음이 어떠신가요?

인생, 미래에 대한 불안감 / 내가 잘 하고 있는건가? 의문심.

2021년 11월 29일

참가자대표 : 임**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나다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요일) / 장소 : 노선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아비투스 책의 7가지 자본 중 부족한 자본을 보충해줄 책은 무엇인가요? 개인 선정 도서</p> <p><오늘부터 클래식>, 김호정 임** 문화자본</p> <p>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가면 항상 잠을 자기 일 수 있다. 그렇게 클래식 음악과 담을 쌓아 가던 차에,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내 취향이 하나 짚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냥 어렵기만 했던 클래식에 쉽게 다가가고자, 이 책을 선정하였다.</p> <p>‘왜 외워서 연주할까’ ‘공연장을 잘 지으면 소리가 좋을까?’ 같은 클래식에 대한 궁금증 부터 유명한 곡들에 대한 설명, 클래식에 대한 작가의 견해까지 담긴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슈만의 유령 변주곡이나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까지 궁금한 노래들은 바로 검색해서 들어보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을 때보다, 음악이 지어진 배경과 작곡가의 스토리를 듣고 나니 훨씬 흥미로웠다.</p> <p>무지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음에서 비롯된다. 클래식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너무 거리를 멀리했나 싶다. 지식에 대한 깊이는 열린 마음에서 온다.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나의 음악적 세계관을 넓혀줄 것이다.</p>							

<경제학 콘서트>, 팀 하포드

박**

경제자본

도서 선정 이유

2주차 독서모임을 통해 경제자본을 보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비투스라는 도서를 읽으며 경제적으로 건강한 소비와 저축을 하는 습관이 나의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돈을 모으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경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저축과 절약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원리에 대해 학습하고자 대학에 들어와서 경제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교양 수업이었기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흘러가는 원리에 대해 접해볼 수 있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부족한 지식과 절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고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느낀점

월슨은 나와 비교해서 더 나은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나는 경제학 저자로 남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경제학 저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 할수 있는 것이 경제학 저술이기 때문이다. (p288)

위의 비교우위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전공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일지 고민해보았다. 나의 MBTI는 ISFJ이며 이 성격유형은 '용감한 수호자'로 불리곤 한다. 나는 남들의 말을 성의껏 듣고 경청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나의 능력은 절대적인 양으로 수치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을 강점으로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절대우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나의 성향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환경에서 만큼은 나의 강점이 비교우위를 차지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임상에서 근무할 때 환자의 아픔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나의 반짝이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될 것이다.

<내 문장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까?> 김은경

김**

언어자본

이 책은 나의 언어자본을 보충해 줄 책이다. 언어자본 중에서도 글쓰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글쓰기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선정하였다.

글 전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 문장당 하나씩 고치기.

중복 표현 걷어내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까?” ->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까?”.

이중형용. “빨간 작은 신발”->“빨갱고 작은 신발”

묘사의 순서. 정보의 구체화.

혼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쉬운 글쓰기 방법을 알려줘서 좋았다. 대부분 필요 없는 수식이나 표현을 쳐내고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문장은 읽히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읽는 이가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문장으로서 실격이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하기에도 이 책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어와 술어를 명확하게 말하고, 거추장스러운 수식은 모두 걷어내는 것을 앞으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김상균, 신병호

김**

경제자본

책 선정 이유

아비투스에서 살펴본 7가지 자본 중,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경제자본'이었습니다. 평소 경제 관념이나 지식이 없었던 저에게 매우 중요한 자본이었죠. 비록 가계부를 쓰고 주식을 한다지만 가계부는 경제의 전부가 아니며 주식은 일절의 공부 없이 남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투자하는 정도입니다. 경제 용어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제라는 분야는 제일 정말로 싫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평소 저와 거리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야 할 자본으로 경제자본을 택하였고 경제에 대한 책으로 무엇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해본 결과 최근 알게 된 단어인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 많고 많은 경제 도서들 중에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24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온 책이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가장 이 세상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다른 책들은 거의 경제학에 관련된 책이거나 경제 전공 전문 책이었습니다. 이 사회 경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학문적이고 수준

이 거기에서 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단순한 지식만 줄 뿐, 응용은 제대로 못해먹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계속 책을 찾아보던 중 화려한 표지의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책을 발견하였고 바로 목차를 확인하여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시대를 이해하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인상깊었던 문장

스마트폰이 혁명이라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Part2의 첫번째 소주제 제목이자 76페이지에 적힌 문장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 스마트폰에 열광하였고 스마트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습니다. 지금 사회만 보아도 다양한 스마트폰이 주기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유명한 대기업끼리 경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쉽게 접하기 시작한만큼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한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를 잘 반영한 저 문장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열정적인 스마트폰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의 생산에 응하듯 엄청난 소비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혁명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적인 스마트폰 사업에 이어 메타버스를 새로운 투자 가치로 내세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등 여러 기업들이 AR이나 VR과 같은 메타버스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산업에 발맞추어 투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느낀점

평소 주식을 할 때, 아무생각 없이 남이 따라서 사는 것들만 사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현대 사회 흐름을 읽는 것도 내키지 않아 하였다. 하지만 세상은 점차 변화하고 있고 사회인이 된 이상 지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을 읽을 필요는 있었다. 평소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접근하면서 나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무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학습을 하면서 앞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높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나 현대 사회의 산업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경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경영학 쪽으로 공부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에 대한 관심을 그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021년 11월 29일

참가자대표 : 임**